

병원여성행정직의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태불안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

배상윤, 김승희*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Convergent Influence of Subjective Happiness, Job Burnout and Psychosocial Stress on State Anxiety among Hospital Women Administrative Staff

Sang-Yun Bae, Seung-Hee Kim*
Professor,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of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병원여성행정직의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상태불안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상태불안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4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였으며, 조사대상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소재 24개 병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여성행정직 226명으로 하였고,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상태불안은 주관적행복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주관적행복감이 낮을수록,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볼 때,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관적행복감을 높이고,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을 낮추는 산업보건교육 및 병원내부고객관리에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연구에서는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인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 병원여성행정직,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불안

Abstract This study ascertained convergent influence on state anxiety and its association with subjective happiness, job burnout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Hospital Women Administrative Staff(HWAS). The survey period was from July 4, 2018 to July 25, 2018. The subjects were 226 HWAS randomly extracted from 24 hospitals in J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State anxie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happiness, and i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burnout and psychosocial stress.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r subjective happiness, and the higher job burnout and psychosocial stress tend to increase state anxiety. In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state anxiety of HWA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ubjective happiness, to reduce job burnout and psychosocial stres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for industrial health education and hospital internal customer management to reduce the state anxiety of HWAS. In the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onvergent addit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state anxiety of HWAS.

Key Words : Convergence, Hospital women administrative staff, Subjective happiness, Job burnout, Psychosocial stress, State anxiety

*Corresponding Author : Seung-Hee Kim(shkim@jvision.ac.kr)

Received July 19,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August 27,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병원은 의료에 대한 높은 질의 요구, 진료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및 건강보험제도의 정착화 등이 발생시키는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있다[1]. 또한 경영혁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전문화된 조직직무관리, 의료 및 행정서비스의 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내부환경에 대한 경영의 과학화 및 합리화로 극대화된 부가가치 창출의 압박을 부단히 수용하고 있다[2]. 병원은 외적요소의 손실은 최소화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내적요소의 약점은 보완하며 강점이 갖는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지속가능경영이 요구되고 있다[3].

병원인력은 의료 및 행정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분야별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하고 면허나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이 직무에 종사하는 고도화된 인력자원구조를 갖는다는 특성이 있다[4]. 이러한 조직 및 직무형태는 병원고객의 불건강 및 심리적 불안감과 맞물려, 병원의 각종 서비스 접점관리의 어려움과 복잡함을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5]. 병원의 인적자원관리의 어려움은 병원경영 측면뿐 아니라, 병원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압박 및 갈등을 야기하여 개인적인 정서 및 심리적 악영향의 가중으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다[6].

병원여성행정직은 의료정보관리, 원무관리 및 건강보험심사청구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병원행정의 중추적인 인력이다[7]. 여성행정직은 병원인력의 이원화 구조에서 역할 모호 및 부서 간 갈등의 최전방에서 고도화된 의료정보 및 경영관리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8]. 또한 질병에 이환된 환자나 보호자의 행정업무 압박 및 긴장[9], 남성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2,10] 및 소진[6], 낮은 직무만족[11]과 낮은 행복감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3,4]은 병원여성행정직의 심리적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원여성행정직의 병원 직무에서 돌발상황, 업무압박, 역할모호 및 자율성 저하 등은 행복감을 낮추고, 직무소진감을 높이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화시켜, 위험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근심 및 공포를 인지하는 상태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불안은 병원여성행정직의 병원직무에 대한 질을 저하시키고, 본인 및 동료의 직무능률을 저하할 수 있으며, 부서 내외의 동료와 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병원서비스 만족도를 낮춤으로써 병원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요인탐색 및 인과관계규명이 긴급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수립을 위해 기존연구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관련성이 암시되었다. 병원직무의 스트레스는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고[12], 병원실습스트레스는 상태불안에 연관성이 있으며[13]. 심리적인 불안 및 정신의 불건강은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지적되어 있고[14,15], 사회심리적 요인들은 상태불안과 상관관계가 있으며[16], 직무수행 과정이 일으키는 스트레스는 상태불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병원행정직의 정서 심리적인 요인들과 직무소진의 관련성이 제기되어 있다[2,5,6].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은 병원고객접점 업무의 만족도를 저하하여 병원행정의 능률을 낮추고 병원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요인에 대한 인과관계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연구에서는 여러 집단의 상태불안 문제를 다루고 있고, 관련된 개개 요인과 상태불안의 일부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나,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영향을 미치는 점을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조사를 참조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융복합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여성행정직의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요인 간 및 상태불안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력을 파악하여 산업보건교육 및 병원내부고객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J지역에서 임의로 선정된 24개 병원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여성행정직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4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적정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18]을 이용하였고, 이때, t-test, 상관분석, ANOVA 및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및 유의수준 .05로 하여 검정력을 검토하였을 때, F기각역 1.62, 최소 필요 표본수 222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부실응답 등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35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결과 278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79.4%), 부실하게 작성

73.0%, 교대근무 27.0%, 주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미만 15.0%, 40시간 59.3%, 41시간이상 25.7%, 현직장의 총 근로자수는 70명미만 31.4%, 70명-130명미만 41.6%, 130명이상 27.0%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26)

Variables	N(%)
Age(yrs)	<30 99(43.8)
	30-39 56(24.8)
	40 ≤ 71(31.4)
Education	≤High school 41(18.1)
	University ≤ 185(81.9)
Spouse	No 116(51.3)
	Yes 110(48.7)
Employment period in the current job(yrs)	<2 115(50.9)
	2-4 57(25.2)
	5 ≤ 54(23.9)
Employment period in the same field(yrs)	<2 57(25.2)
	2-4 57(25.2)
	5-9 112(49.6)
Monthly income(KRW)	<2 million 153(67.7)
	2-2.9 million 60(26.5)
	3 million ≤ 13(5.8)
Position	General staff 204(90.3)
	Manager over 22(9.7)
Employment type	Permanent 215(95.1)
	Temporary 11(4.9)
Shift pattern of duties	Daywork 165(73.0)
	Shiftwork 61(27.0)
Weekly average working hours(hrs)	<40 34(15.0)
	40 134(59.3)
	40 < 58(25.7)
No. of Hospital employee(person)	<70 71(31.4)
	70-130 94(41.6)
	130 ≤ 61(27.0)
Total	226(100.0)

3.2 상태불안과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3에서 상태불안과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태불안은 주관적행복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직무소진의 3가지 하위요인인 소진, 냉소 및 직업효능감 감소, 그리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odel factors

Variables	1	2	3	4	5
1. State anxiety	1				
2. Subjective happiness	-.606**	1			
3. Exhaustion	.409**	-.258**	1		
4. Cynicism	.465**	-.358**	.568**	1	
5. Reduced professional efficacy	.358**	-.405**	.128	.289**	1
6. Psychosocial stress	.695**	-.652**	.412**	.424**	.423**

* : p<.05, ** : p<.01.

3.3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1개의 외생개념(주관적행복감)과 3개의 내생개념(직무소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을 이론적 잠재변수로 모델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모델의 잠재변수인, 조직몰입의 주관적행복감은 주관적행복감으로, 직무소진의 관측변수는 직무소진의 소진, 냉소 및 직업효능감 감소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측변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로, 상태불안의 관측변수는 상태불안으로 하였다.

Table 4에서 모델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에서, $\chi^2=6.225(df=3)$ 이고, $\chi^2/df=2.075$ 로 판단기준치 3이하이며, 유의확률은 판단기준치 .05이상인 $p=.101$ 이었고, 원소간 평균차이(RMR)은 .05이하인 .023이었으며, 기초부합치(GFI)는 .9이상인 .991이었고, 조정부합치(AGFI)도 .9이상인 .937이었으며,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차(RMSEA)는 .08이하인 .069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9이상인 .988이었고, 비표준적합지수(TLI)는 .9이상인 .968이었으며, 비교부합지수(CFI)는 .9이상인 .994로 나타나, 수용할만한 모델로 볼 수 있었다.

Table 4. Model identification

	Model Fit
	$\chi^2 = 6.225(df = 3), \chi^2/df = 2.075, p = .101$
Absolute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23
	GFI(Goodness of Fit Index) = .991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37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69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 .988
	TLI(Tucker-Lewis Index) = .968
	CFI(Comparative Fit Index) = .994

Table 5 및 Fig. 1에서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표준경로계수가 주관적행복감은 상태불안에 대해 -.334로 부(-)의, 직무소진에 대해 -.506으로 부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632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생변수간의 효과를 보면, 직무소진은 상태불안에 대해 .271로 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249로 부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상태불안에 대해 .288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SMC)로 볼 때, 주관적행복감이 직무소진을 25.7%, 주관적행복감 및 직무소진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62.1%,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태불안을 59.5% 설명하였다. 모든 경로계수는 1%수준으로 유의하였다.

Table 5.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rro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Job burnout	Psychosocial stress	Subjective happiness	Z	SMC [¶]
Job burnout		-.506**	.233	.257
Psychosocial stress	(.249**) ¶	-.632**	.632	.621
State anxiety	.271**	-.334**	.865	.595

* : $p < .05$, ** : $p < .01$, ¶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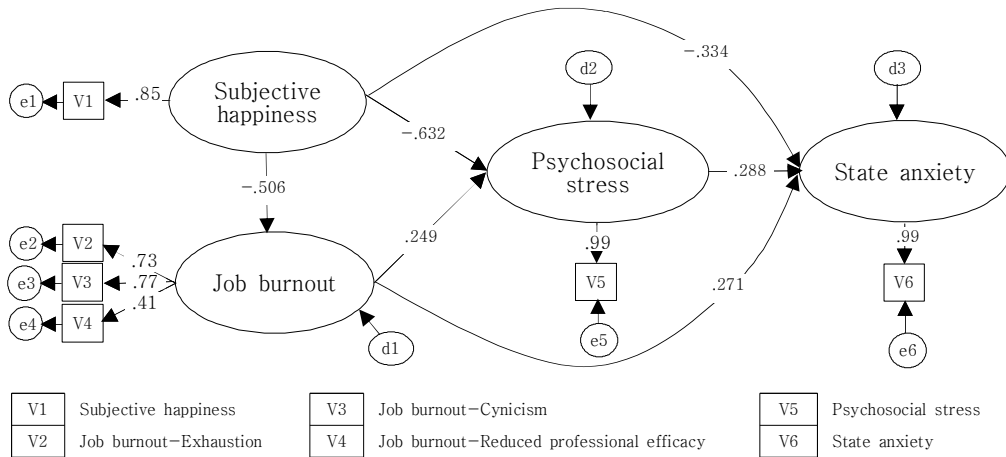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 고찰

본 연구는 병원여성행정직의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태불안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상태불안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태불안은 주관적행복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직무소진의 3가지 하위요인인 소진, 냉소 및 직업효능감 감소, 그리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태불안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본 조사에서도 흡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주관적행복감이 심리적 문제에 연관되었다는 보고[27]는, 병원여성행정직에서도 주관적으로 행복하다는 판단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두려움, 걱정 및 긴장감을 갖는 일시적인 불안상태인 상태불안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급실간호사의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의 정적상관관계[12]는 본 조사의 직무소진 및 상태불안의 관련성으로 유사하였고,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의 연관성[13]은 본 조사의 상태불안 관련 요인에서 비슷하게 점검되었고, 기록물관

리직의 직무소진과 상태불안의 관련성[17]은 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직무압박으로 인한 직무소진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상태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같이 병원여성행정직의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상태불안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태불안을 낮추기 위하여 이들 요소를 관리하는 중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주관적행복감을 외생잠재변수로, 직무소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을 내생잠재변수로 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은 적합하였으며, 경로계수에서, 직무소진은 주관적행복감에서 -.506,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주관적행복감에서 -.632로, 직무소진에서 .249, 상태불안은 주관적행복감에서 -.334, 직무소진에서 .271, 사회심리적스트레스에서 .288로 나타났다. 기존보고에서 주관적행복감이 높을수록[27], 직무소진이 낮을수록[12,13,17],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14-16], 상태불안이 높다는 지적은 병원여성행정직에서

도 비슷하였다.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은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선행요인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병원여성 행정직의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상태불안의 경감을 위한 중점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직장 환경과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찾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심신의 탈진 및 냉소를 조절하며, 무관심을 극복하는 노력이 상태불안을 감소시키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었다. 또한 정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발생시키는 정신 및 육체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방어기제의 작동이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병원여성행정직은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예방인자로 관리하여 상태불안을 개선하는 중재 및 개입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표본의 횡단면적조사로 결과의 해석을 전체 병원여성행정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도가 있다.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설문지 작성방식으로 인한 응답편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에서, 병원여성 행정직의 상태불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산업보건교육 및 병원내부고객관리에 적용을 의도해 본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불안 척도의 개발[28]과 불안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요인들인 해석수정프로그램[29], 수행능력 및 자신감[30] 및 예상치 못한 경험[31] 등이 병원여성행정직원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병원여성행정직의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태불안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2018년 7월 4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소재 24개 병원에서 무작위 추출된 여성행정직 22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상태불안은 주관적행복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소진, 냉소 및 직업효능감 감소, 그리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주관적행복감, 직무소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태불안에 융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인, 주관적행복감을 높이고, 직무소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산업보건교육 및 병원

내부고객관리를 위한 자원을 마련하고 중재방안을 개발하여 병원여성행정직의 상태불안을 낮추는 다양한 개입 노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Y. Bae & S. H. Kim.(2019). Convergen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loyalty and job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some administrative staff in medical institu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303 - 309. DOI : 10.14400/JDC.2019.17.5.303
- [2] S. H. Kim & S. Y. Bae. (2019). A study on the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among some administrative staff in medical institu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159-166. DOI : 10.14400/JDC.2019.17.4.159
- [3] S. Y. Bae & S. H. Kim. (2018).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esteem,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on depression among general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01-307. DOI : 10.14400/JDC.2018.16.9.301
- [4] S. H. Kim & S. Y. Bae. (2018). A study on the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administrative staff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251-258. DOI : 10.14400/JDC.2018.16.6.251
- [5] S. Y. Bae & S. H. Kim. (2018).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type A behavior pattern and depression on job burnout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345-351. DOI : 10.14400/JDC.2018.16.3.345
- [6] S. H. Kim & S. Y. Bae. (2017).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job burnout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349-356. DOI : 10.14400/JDC.2017.15.10.349
- [7] S. H. Kim & S. Y. Bae. (2018).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occupational stress among general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259-265. DOI : 10.14400/JDC.2018.16.4.259
- [8] S. Y. Bae & S. H. Kim. (2018).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justice, self esteem and self efficacy on occupational stress among some regional general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5), 309-315. DOI : 10.14400/JDC.2018.16.5.309
- [9] S. H. Kim & S. Y. Bae. (2017).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365-375.

- DOI : 10.14400/JDC.2017.15.4.365
- [10] S. H. Kim & S. Y. Bae. (2014). Factors related to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433-443. DOI : 10.14400/JDC.2014.12.10.433
- [11] S. Y. Bae & S. H. Kim. (2017).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fficacy, job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stress on job satisfaction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239-246. DOI : 10.14400/JDC.2017.15.7.239
- [12] S. Y. Jeon & J. Y. Ha. (2013). Factors influencing compassion fatigue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1), 335-347. UCI : G704-000930.2013.15.1.017
- [13] H. S. Jang & J. S. Lee. (2016). Effects of intensive clinical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in nursing practice on their clinical competence, state anxie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4), 419-429 DOI : dx.doi.org/10.7739/jkafn.2016.23.4.419
- [14] Y. M. Lee. (2011). Relationship self-control, stress, lonel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2), 5541-5549. DOI : 10.5762/KAIS.2011.12.12.5541
- [15] K. H. Hwang, Y. S. Yoo & O. H. Cho. (2012).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DOI : 10.5392/JKCA.2012.12.10.365
- [16] Y. S. Song, I. S. Kwon & Y. C. Cho. (2012). Psychosocial Factor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the Elderly People in a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8), 3521-3531. DOI : 10.5762/KAIS.2012.13.8.3521
- [17] S. W. Kim & S. H. Kim. (2018). An influence of record manager's job stress on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tate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1), 103-127. DOI :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1.103
- [18] F. Faul, E. Erdfelder, A.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DOI : 10.3758/BF03193146
- [19] S. Lyubomirsky & H. S. Lepper.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DOI : 10.1023/A:1006824100041
- [20] J. H. Ki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expectancy and stress/well-being: An application of motivational states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2), 325-345. DOI : 10.17315/kjhp.2007.12.2.003
- [21] C. Maslach, W. B. Schaufeli & M. P. Leiter.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397-422. DOI : 10.1146/annurev.psych.52.1.397
- [22] K. H. Shin. (2003).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MBI-GS): An application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3), 1-17. UCI : G901:A-0001839541
- [23] D. Goldberg. (1978).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 NFER-Nelson. ISBN : 0700502130, 9780700502134
- [24] S. J. Chang. (2000). *Standardization of health statistics data and measurement*.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92-143. ISBN : 8985573624, 9788985573627
- [25] C. D. Spielberger. (1972). *Anxiety on emotional state, anxiety current trend s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s press, 1972. DOI : 10.1016/B978-0-12-657401-2.50008-3
- [26] J. T. Kim & D. K. Sin, (1978). A study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STAI for Korea, *The New Medical Journal*, 21(11), 69-75.
- [27]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mong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269-278. DOI : 10.14400/JDC.2016.14.3.269
- [28] C. M. Lee. (2018). Development of an multi-dimensional affect scale for distinguishing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393-406. DOI :10.15207/JKCS.2018.9.10.393
- [29] H. Y. Yoon. (2017). Interpretation bias modification for social anxiety disorder: Development of computer based cognitive modifi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111-122. DOI : 10.15207/JKCS.2017.8.4.111
- [30] E. J. Yoon & Y. M. Park. (2017). The effects of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confidence and anxie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39-45. DOI : 10.22156/CS4SMB.2017.7.5.039
- [31] M. J. Lee & H. K. Kang. (2019). Experiences of patient safety accidents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139-147. DOI : 10.22156/CS4SMB.2019.9.2.139

배 상 윤(Sang-Yun Bae)

[장학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보건교육

· E-Mail : sangyb@jvision.ac.kr

김 승 희(Seung-Hee Kim)

[장학원]



- 199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건강보험

· E-Mail : shkim@jvision.ac.kr